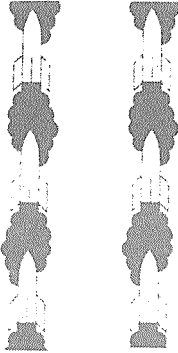


電子工業日誌



〈1989. 3. 1 ~ 3. 31〉

- 3. 1: 通信公, 최첨단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텔레 빌딩을 '92년까지 건설키로.
- 3. 1: 工振廳, 중소기업 기술지도 주무관청인 본청을 중소기업청으로 기구 개편,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두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.
- 3. 2: 特許廳, 공업소유권 전자분야 편중 작년 가전 3社서 1만 2,000건 출원.
- 3. 2: EC, 對韓 수입규제 강화 전자·자동차 등까지 확대.
- 3. 3: 商工部, 2월중 수출은 43억 4,3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.4% 증가한 반면 수입은 42억 3,800만 달러로 17.1%가 늘어났다고.
- 3. 4: 美 상무성, 한국·일본·대만 등의 컬러 TV 우회 수출 감시 나서.
- 3. 6: 遞信部, 정보통신역무 제공업체 설립조건을 완화하여 순수 자체이용 신고제로 변경.
- 3. 7: 中企協中央會,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자금으로 1,145억 원이 지원된다고.
- 3. 8: SW산업協, 특정연구개발 과제로 수행해 왔던 소규모 소프트웨어 틀과 방법론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.
- 3. 8: 政府, 전국토의 기술지대망(테크노 벨트) 구축과 관련 가칭 기술지대망촉진법을 제정키로.
- 3. 9: 通信公, 국제통신 교환시설 '96년 까지 100% 디지털화하기로.
- 3. 10: 標準研, 2.2K(영하 270.8도)에서 14테슬라의 高磁場 생성이 가능한 초전도 자석 설치.
- 3. 10: EIAJ, 지난 1월중 VTR의

- 국내출하는 전년 동월보다 20% 줄어든데 비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.7% 늘어난 139만 6,000대에 달했다고.
- 3. 11: 通信公, 현재 8%에 불과한 비음성 서비스 수입을 '96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0%로 끌어올리기로.
- 3. 14: 貿公, 대일 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 구매단을 유치하고 9월 국내 150여개 업체가 참가하는 한국상품종합전시회를 동경에서 개최키로.
- 3. 15: 通信公, 국제통신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미·일·대만·홍콩 등과 직원 상호 파견 추진.
- 3. 15: 韓銀, 「한은 대출업무 취급 규정」을 일부 개정, 한은이 관장

하던 무역금융특별승인 권한을 일 반은행에 위임.

- 3. 15: 企劃院, 국내 광공업생산은 전기·전자·운수장비 등 중화학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13.5%의 높은 신장세를 기록했다고.
- 3. 16: 遞信部, 국제화 추세에 대처키 위해 ITV 관리理事國 진출 예정.
- 3. 19: 政府, 국내 정보산업 육성을 위해 컴퓨터 리스 자금을 확대, 추진키로.
- 3. 20: 通信開發研, 국내 VAN市場의 활성화 촉진을 위해 民間업체에 개방 확대를 제시.
- 3. 21: 遞信部, '91년 이후의 쌍방향 CATV(有線TV) 실용화에 대비, 주요 관련기기 및 기술을 국산화하기로.
- 3. 22: 政府, 항공기, 인공외성 분야의 연구기관으로「航空宇宙研究所」를 설립키로.
- 3. 25: 美業界, '89~'90년의 세계 반도체 경기가 크게 퇴조할 전망이다 이라고.
- 3. 27: 通信公, 全電子交換機 구매 물량에 대한 인센티브制 비율을 조정, 내년에는 올해의 절반인 8%로 낮추기로.
- 3. 28: 科技處, 기초과학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20곳에 연구센터를 육성키로.
- 3. 30: 遞信部, 공중정보통신 서비스(DNS)의 가입비 및 기본료를 대폭 인하키로.
- 3. 31: 通信公, 국산 全電子 교환기(TDX)를 통한 종합정보 통신망(ISDN) 시범 서비스를 서울지역에서 실시키로.